

부산광역시 보 도 자 료		담당부서	금융블록체인과 (금융육성팀)
	2021년 8월 25일(수) 배 포 족 시	담 당 자	과 장 임재선 팀 장 김창현 주무관 박성오
		연 락 처	051-888-4860 051-888-4873 051-888-4874

- 부산시와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지역특화 금융 인재 양성' 맞손 - 지·산·학 협력으로 지역특화 금융 인재 키운다!

- ◆ 9월 24일까지 부산지역 대학 대상, 지역특화 금융 인재양성 지·산·학 협력사업 공모
- ◆ BIFC 금융실무 전문가의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금융인력 양성 및 금융 기관 취업의 선순환 금융산업 생태계 확대 효과 기대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국제금융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한 초석으로 지·산·학 협력사업을 통한 지역특화 금융 인재 양성에 첫 시동을 건다.

시와 부산국제금융진흥원(원장 김종화)은 부산국제금융센터 금융전문가를 활용한 지역특화 금융 인재 양성 지·산·학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다음 달 24일까지 참여를 원하는 대학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학은 부산시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신청서 등을 부산국제금융진흥원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부산금융중심지가 국제적인 금융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지역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하여 금융 분야에 특화된 산학 연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금융전문기관으로 설립된 (사)부산국제금융진흥원이 사업을 총괄하고, 금융진흥원 참여기관* 금융전문가들이 지역대학과 매칭되어 비전임 교원으로 참여한다.

* 부산광역시,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BNK부산은행, 기술보증기금

먼저, 올해는 'BIFC 비전임교원 양성과정'을 통해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전

문성을 두루 갖춘 금융기관 재직자를 비전임 교원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이렇게 양성된 BIFC 금융실무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부산지역 대학(원)에서 겸임교수나 초빙교수, 팀티칭 강사 등으로 채용되어, 학생들의 금융실무 전문 교육을 담당할 예정이다.

김종화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은 “이번사업은 부산으로 내려온 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금융관련 기관들이 지역에서 원하는 공헌사업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혜택을 받은 대학 내 젊은 인재들도 취업과 함께 기업이 원하는 실무에 빠르게 적응하는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국제적인 금융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금융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기업과 대학이 함께 연계되어야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추진하는 지역특화 금융인재 육성사업이 지산학 협력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금융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지역 대학생들이 이번 기회를 잘살려 원하는 곳에 취업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많이 육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